

# 나주 금성고 사이클 시즌 첫 대회 종합우승

강진투어 전국도로사이클대회서 선수들 골고루 상위권 입상  
신동일 최우수 신인상 수상...올해 전국체전 정상 복귀 청신호

나주 금성고 사이클 팀이 올시즌 첫 대회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금성고는 지난 3월 2일~5일까지 강진군에서 열린 제69회 3·1절 기념 강진투어 전국도로사이클대회에서 정상에 올랐다. 김정민, 윤영우, 신동일, 유시안, 나현광, 이민우, 박상진이 금빛 질주의 주인공이다. 이 가운데 김정민(3년), 신동일(2년)의 활약이 돋보였다.  
김정민은 개인도로, 개인도로2, 크리테리움을 각각 5위(3시간5분10초), 2위(1시간58분29초), 5위(28분22초)를 차지하며 3개 종목 시간을 합산해 개인종합 2위(5시간32분01초)에 올랐다.  
신동일은 최우수 신인상을 차지해 차세대 사이클 국가대표로 주목받았다. 신동일은 고교 전학년을 통틀어 가장 좋은 성적을 낸 1명에게 주는 신인상의 주인공이 됐다.  
금성고는 종합우승이 쉽지 않은 도로사이클 대회에서 정상을 차지해 명문팀으로서 위상을 재확인했다.

개인으로 단체 1구간, 개인도로 단체 2구간, 크리테리움 단체 등 3구간 단체전에서 모두 1등을 차지하며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박현상 지도자는 “도로 사이클의 경우 어느 한 선수가 아니라 출전 선수들이 고루 상위권에 입상해야 하기 때문에 종합우승이 어렵다”면서 “이번 대회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금성고가 사이클 명가로서 명성을 이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성고는 올시즌 첫 대회에서 주목할 만한 성적을 일궈내 전국체전 제패에 청신호를 밝혔다.  
금성고는 지난해 최정상 멤버를 보유하고도 전국체전 정상을 차지하지 못했다. 올시즌 향배를 가늠하는 이번 대회에서 주전 선수들의 기량이 여전한에 따라 전국체전 정상 복귀를 노려볼 수 있게 됐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최근 강진군에서 열린 제69회 3·1절 기념 강진투어 전국도로사이클대회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한 나주 금성고 사이클팀. <전남도체육회 제공>

## 사면초가 미컬슨 PGA투어 복귀하나

커미셔너 “복귀하겠다면 환영”

인권을 탄압하는 사우디아라비아 편에 서서 미국프로골프(PGA)투어를 노골적으로 비난했다가 PGA투어에서 퇴출당할 위기에 몰린 필 미컬슨(미국)에게 탈출구가 열릴 조짐이다.  
PGA투어 제이 모너헨 커미셔너가 미컬슨이 PGA투어에 복귀하겠다고 환영하겠다는 뜻을 9일(한국시간) 밝혔기 때문이다.  
사우디아라비아 국부 펀드의 지원을 받는 슈퍼골프리그 창설에 앞장선 미컬슨은 최근 사우디 정부가 인권을 탄압하고 반정부 언론인을 살해한 걸 알지만 선수들의 돈을 착취하는 PGA투어를 뜯어고치는 지렛대로 삼겠다고 말했다가 역풍을 맞았다.  
미컬슨은 KPMG, 워크데이, 캘러웨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등 후원 기업을 잃었고 동료 선수들에게도 비난을 받아 궁지에 몰렸다.  
사면초가에 빠진 미컬슨은 사과하고 자숙한다면서 PGA투어 대회에 출전하지 않고 있다.  
모너헨 커미셔너는 “미컬슨이 PGA 투어에 복귀할 준비가 되면 그와 대화하겠다. 기다리고 있다”고 9일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연합뉴스



마음이 급했다...라켓 대신 발 8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인디안 웰스 테니스 코트에서 열린 BNP 파리바스 오픈 투지지의 온스 자베르와 그리스의 마리아 사키리의 경기에서 자베르가 라켓이 아닌 발로 공을 차고 있다. /연합뉴스

## 머리, 우크라 어린이 위해 남은 대회 상금 기부

‘빅4’로 불리는 영국 테니스 스타

영국의 테니스 스타 앤디 머리(35)가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을 위해 상금을 기부하기로 했다.  
영국 BBC는 9일(한국시간) “머리가 올해 남은 대회에서 획득한 상금을 러시아 침공으로 피해를 본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을 위해 기부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전쟁 피해 아동 등을 돕는 유엔기구인 유니세프 영국위원회 전신대사로 활동 중인 머리는 “러시아

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750만명이 넘는 아이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며 “지금 우크라이나 아이들은 평화가 필요하다”고 기부 이유를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아이들의 교육이 지속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유니세프와 함께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파괴된 학교를 재건하고 장비 및 가구를 교체하는 데 힘쓰고 있다”고 우크라이나 구호 동참을 호소했다.  
1987년생 머리는 한때 노바크 조코비치(세르비아), 라파엘 나달(스페인), 로저 페더러(스위스)와

함께 남자 테니스의 ‘빅4’로 불린 선수다. 메이저 대회에서 2012년 US오픈, 2013년과 2016년 윌버던 등 세 차례 우승했고, 호주오픈에서는 2010년부터 2016년 사이에 준우승만 5차례 기록했다.  
앞서 프로테니스협회(ATP)와 세계여자테니스협회(WTA), 국제테니스연맹(ITF) 등 테니스 단체들도 8일 우크라이나 테니스연맹을 지원하고 인도주의적 활동을 돕기 위해 70만 달러(약 8억6천400만원)를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또 우크라이나 테니스 선수인 다야나 야스트렘스카도 WTA 투어 리옹 메트로폴리스오픈 단식 준우승 상금 1만4545 유로(약 1900만원)를 우크라이나 지원 재단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한국 패럴림픽 첫 메달 언제쯤

4종목 치른 신의현 메달 획득 실패...“남은 2종목서 최선을”

‘평창 영웅’ 신의현(42·창성건설)이 2022 베이징 동계패럴림픽에서 4개 종목을 치렀지만, 아직 메달은 손에 넣지 못했다.  
신의현은 9일 중국 장자커우 국립바이애슬론센터에서 열린 대회 크로스컨트리 스키 남자 스프린트 좌식 예선에서 2분28초60을 기록, 출전 선수 38명 가운데 14위에 자리해 예선 상위 12명이 나서는 준결승에 진출하지 못했다.  
짧은 시간에 힘을 폭발시켜 1km 내외를 달리는 크로스컨트리 스프린트는 지구력, 끈기가 강점인 신의현의 주 종목은 아니다. 신의현은 장거리, 중거리에서 강세를 보인다.  
이날은 신의현의 베이징 대회 4번째 레이스였다. 2018년 평창동계패럴림픽 크로스컨트리 스키 7.5km에서 한국 동계패럴림픽 사상 첫 금메달을, 같은 종목 15km에서 동메달을 목에 건 신의현은 이번 대회 앞선 세 번의 레이스에서도 메달 획득에 실패했다.  
이제 남은 경기는 두 종목이다. 신의현은 11일 바이애슬론 남자 좌식 12.5km에, 12일 크로스컨트리

리 스키 남자 좌식 10km에 출전한다.  
경기를 마친 뒤 신의현은 “스프린트는 원래 약한 종목이다. 짧은 시간에 체력을 많이 쓰기 때문에 장거리보다 어렵다. 동계패럴림픽 전 종목 참가를 위해 출전했다”며 “결선 진출을 목표로 했는데 예선에서 탈락해 조금 실망스럽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사격이 약점인 신의현은 앞선 두 차례 바이애슬론 경기에서는 사격 실수에 올랐다.  
첫 레이스였던 6km에서 10발 중 3발을, 10km에서는 20발 중 6발을 놓친 게 뼈아팠다.  
신의현은 마지막 바이애슬론 경기에서는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각오다.  
그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목표다. 목표는 언제든 금메달”이라며 메달을 향한 굳은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이날 함께 스프린트에 출전한 원유민(34)과 정재석(35·이상 창성건설)은 각각 28위(2분48초51), 33위(2분55초85)로 예선 탈락했다.

/연합뉴스

## PO 막차, 삼성생명이나 부산BNK나

여자프로농구 11일 재개

삼성생명 2021-2022 여자프로농구가 한 달 반 동안의 휴식기를 마치고 11일 재개해 정규리그 마지막 6라운드에 들어간다.  
여자프로농구는 국가대표팀 소집 일정과 제20대 대통령 선거 때 일부 경기장이 개표 장소로 사용되는 점을 고려해 1월 27일 경기를 끝으로 정규리그를 일시 중단한 상태다.  
재개 첫 경기는 11일 오후 7시 용인체육관에서 열리는 용인 삼성생명-청주 KB의 대결로 치러진다.  
5라운드까지 팀당 25경기씩을 치른 현재 1-4위, 2-3위가 맞붙는 플레이오프(PO) 대진의 윤곽은 거의 드러났다.  
KB(23승 2패)가 24경기 만에 일찌감치 정규리그 1위를 확정된 가운데 2위 아산 우리은행(17승 8패)과 3위 인천 신한은행(14승 11패)도 PO 출전권을 확보했다.

2, 3위 순위가 가려지지 않았을 뿐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PO에서 맞붙는 게 정해진 가운데 이제 남은 것은 KB와 챔피언결정전 진출을 다툰 4위가 누가 되느냐이다. 현재 4위는 지난해 챔피언결정전 우승팀 삼성생명(9승 16패)이다.  
하지만 창단 첫 PO 진출을 노리는 5위 부산 BNK(8승 17패)와는 1경기 차에 불과하다.  
올 시즌 두 팀 간 상대 전적에서는 삼성생명이 3승 2패로 앞서 있다. 두 팀은 17일 용인에서 정규리그 마지막 맞대결을 펼친다.  
정규리그 막판 타이틀 경쟁에도 관심이 쏠린다. 스틸 부문에서는 신한은행 한채진(39개)과 삼성생명 이주연(36개)이, 블록 부문에서는 KB 박지수(41개)와 부천 하나원큐 양인영(39개)이 1위를 놓고 접전을 펼치고 있다.  
KB 강이슬은 5년 연속 3득점상 수상과 더불어 단일리그 이후 최초로 경기당 3점 쏜 3.00개 이상 기록에도 도전한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충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더 배트맨
2관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
3관	언차티드
4관	더 배트맨
5관	더 배트맨, 블랙라이트
6관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
9관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
7관 씨네케틀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 더 무비: 월드 히어로즈 미션, 안테벨룸
8관 씨네케틀	극장판 주술회전 0, 블랙라이트,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 더 무비: 월드 히어로즈 미션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뮤지컬 앤Anne**

일시 : 2022.04.02.(토)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3

**박재홍 피아노 리사이틀**

일시 : 2022.03.25.(금)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5

**문화산책**

즐거움